

## 『龍崗秦簡』第1~10簡 연구

이소화\* · 김준수\*\*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龍崗秦簡 소개와 연구 현황
3. 第1~10簡의 해독과 주석
4. 나가는 말

### 【초록】

본고는 龍崗秦簡 제1간부터 제10간까지의 내용에 대해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해독을 시도하였으며, 쟁점이 되는 부분에는 상세한 주석을 덧붙이고 고찰을 진행하였다. 주석 작업에 里耶秦簡과 岳麓書院藏秦簡 등 용강진간 이후에 발굴된 최신 秦문자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판독에 어려움이 있는 글자에 대해서는 관련 秦문자와의 자형 비교를 진행해 보다 정확한 考釋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용강진간 제1간에서 제10간까지의 내용은 禁苑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기록이다. 금원은 皇家의 가축과 식물들을 기르고 관리하던 정원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따라서 하수도로 몰래 드나들거나 출입증 없이 관문을 지나가면 斬止라는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으며, 공문서의 관리 역시 엄격한 규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 【키워드】 출토문헌, 용강진간, 진간, 진문자, 진법률

\* 충북대학교 중국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제1저자 (suhe0916@naver.com)

\*\* 한국교원대학교 중국어교육과 부교수, 교신저자 (dorachu@naver.com)

## 1. 들어가는 말

1989년 湖北省 雲夢縣 城關鎮의 동남쪽 교외에 자리한 龍崗에서 秦代에 작성된 竹簡과 木牘이 출토되었는데, 당시 발굴된 9개의 秦漢墓 중 제6호 묘에서 발견된 죽간을 龍崗秦簡이라고 일컫는다. 그 내용은 주로 秦의 법률과 관련된 것인데, 주된 작성 시기가 천하 통일 이후이므로 통일 전의 秦律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루는 睡虎地秦簡과의 비교를 통해 秦代 법률의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 큰 참고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된다.

출토 이래 과거 30여년간 고고학·역사학·언어학·문자학 등 여러 분야 학자들이 秦의 법률 제도와 사회상 그리고 당시 중국어의 통사 구조와 문자 연구에 용강진간 자료를 활용해 왔으며, 그간 적잖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의 밑바탕에는 1차 자료인 용강진간 簡文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과거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간문에 대한 考釋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용강진간 간문에 대한 전면적인 고석 작업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역사학계에서 용강진간 자료를 일부 활용한 몇 편의 소논문이 나와 있을 뿐이다.

기존의 용강진간 고석에는 1975년에 발굴된 수호지진간의 자형과 文例가 참고 자료로서 많이 활용되었는데, 최근에는 『里耶秦簡』(壹)(貳)와 『岳麓書院藏秦簡』(壹)~(伍)가 출간되어 용강진간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훨씬 많아졌다. 이러한 현시점의 유리한 연구 여건을 활용하여 본고는 용강진간의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해독하고, 고석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상세한 주석을 달아 관련 분야 연구의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 2. 龍崗秦簡 소개와 연구 현황

### 1) 개략적 소개

용강진간은 1989년 당시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孝感地區博物館·雲夢縣博物館 3개 기관의 협업으로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제6호 묘에서 墓主의 유해가 들어있던 관의 아래쪽에서 진흙에 뒤엉킨 채로 발견되었다. 그 수량은 殘簡 10매를 포함해

총293매로 집계되었고 묘주 유해의 허리 부근에서는 1개의 목독도 발견되었다.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죽간은 길이가 28cm에 폭이 0.5~0.7cm정도이며, 죽간 한 매에 약 24개의 글자가 기록되어 있다. 죽간의 상반부는 墨跡이 비교적 선명하여 글자를 알아보기 쉬우나 하반부는 손상이 심해 판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죽간을 묶은 끈은 발견 당시 광택이 있는 백색을 띠었으며, 묵적을 누른 흔적이 있어 먼저 죽간의 黃面에 서사를 끝낸 후에 윗부분·가운뎃부분·아랫부분 세 곳을 끈으로 묶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사 스타일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한 사람에 의해 써진 것으로 판단되며, 그 字體는 秦代에 사용된 예서의 초기 형태인 秦隸이다.

묘주의 신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죽간의 내용이 모두 법률조문이고 목독의 내용은 사법문서인 것으로 보아, 법률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하급 관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리고 죽간에서 기존에 백성을 지칭하던 단어인 百姓을 모두 黔首로 고쳐 부르고 있고, 皇帝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馳道 관리와 관련된 律文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 점에 근거하여, 학계에서는 죽간의 서사 시기를 수호지진간보다 약간 뒤로 보고 있는데, 대략 秦始皇 27년(B.C.220)에서 秦二世 3년(B.C.207)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2) 연구 현황

1989년 발굴 작업에 투입되었던 3개의 기관은 1994년에 나온 『雲夢龍崗6號秦墓及出土簡牘』에 용강진간의 석문과 주석, 그리고 모든 도판을 실었는데 이것이 용강진간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주요 집필자인 劉信芳과 梁柱는 1997년에 다시금 『雲夢龍崗秦簡』을 출간하였는데, 여기에 석문과 주석의 수정본과 죽간 도판의 摹本도 함께 수록하였다. 또한 1995년에서 1997년에는 中國文物研究所<sup>1)</sup>의 胡平生과 湖北省考古所의 李天虹·劉國勝이 새롭게 용강진간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하여 죽간의 綴合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에 따라 간문의 순서와 배치도 최초의 보고서와 차이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들의 연구 성과는 『龍崗秦簡』에 담겨 2001년에 출판되었다.

용강진간의 연구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된 것은 陳偉가 이끈 연구 프로젝트로, 2009년 湖北省博物館과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의 도움에 힘입어 武漢大學의 簡帛研究中心은 ‘秦簡牘의 종합 정리와 연구(秦簡牘的綜合整理與研究)’라는 ‘교육부 철학 사회과학 핵심과제 연구 프로젝트(教育部哲學社會科學研究重大課題攻關項目)’를 수행하였다.

1) 현재 명칭은 中國文化遺產研究院.

연구 과정에서 시카고 대학의 크릴<sup>2)</sup>중국고대한자학센터(Creel Center for Chinese Paleography)가 제공한 적외선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호북성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용강진간을 재촬영하게 되어, 전보다 훨씬 더 선명한 고해상도의 간독 사진을 얻었다. 이 간독 사진을 이용하여 李天虹·曹方向·蔡丹이 용강진간의 재정리 및 연구 작업을 진행하였고 마침내 그 연구 성과가 2014년 『秦簡牘合集(貳)』에 실리게 되었다. 이 책에는 용강진간의 원도판과 적외선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새로 찍은 도판, 이 두 가지 종류의 도판을 나란히 배치하여 수록하고, 이어 2배 확대한 도판도 추가로 수록하여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였다. 뒤이어 2016년에는 『秦簡牘合集』의 석문과 주석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한 수정 의견을 반영해 엮은 『秦簡牘合集·釋文注釋修訂本』을 발간하였으며, 그중 용강진간의 석문과 주석에 대한 수정 내용은 第叁卷에 실려 있다.

일본에서는 2011년 馬彪가 용강진간의 간문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주석을 붙인 『龍崗秦簡譯注(凡十一篇)』를 발표하였고, 이를 다듬고 정리한 것이 2013년 京都大學에서 출간된 『秦帝國の領土經營, 雲夢龍崗秦簡と始皇帝の禁苑』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서 1994년에 출간된 최초보고서를 ‘정리자1’로, 1997년의 『雲夢龍崗秦簡』을 ‘정리자2’로, 2001년의 『龍崗秦簡』을 ‘정리자3’으로, 2014년의 『秦簡牘合集(貳)』를 ‘정리자4’로, 2016년의 『秦簡牘合集·釋文注釋修訂本(叁)』을 ‘정리자5’로 약칭한다.

### 3. 第1~10簡의 해독과 주석

#### <범례>

- 墨跡이 희미해 어떤 글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로 표시한다.
- 簡牘이 부서지거나 손상이 있는 곳은 ▣로 표시한다.
- 殘劃에 근거해 추측한 글자는 【 】 안에 적어 넣었다.
- 현재 쓰이는 글자나 通假字는 ( )안에 적어 넣었다.
- 簡牘 일련번호 뒤의 ‘正’은 앞면을, ‘背’는 뒷면을 의미한다.

2) Herlee Glessner Creel(중국명 顧立雅 혹은 顧理雅, 1905-1994), 미국의 저명한 중국학 연구자로 시카고 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시카고 대학의 동아시아연구센터(Center of East Asian Studies)를 세웠고, 미국에서의 중국학 연구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크릴중국고대한자학센터(Creel Center for Chinese Paleography, 중국어명 顧立雅中國古文字學中心)는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붙여 설립된 시카고 대학 내의 고문자학 연구기관이다.

## 1) 第一簡

원문	諸段(假)兩雲夢池魚(籩)及有事雲夢禁中者, 得取灌(藿)、葦、茅
역문	두 곳의 운몽관이 관할하는 연못과 禁苑을 빌렸거나, 공무가 있어 운몽의 출입 금지 지역에 들어간 모든 자는 물억새, 갈대, 락 등을 취할 수 있고, □

① 諸: 범위 부사로 ‘온갖’·‘모든’의 뜻을 지니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예외가 없음을 나타낸다.




② 段: 假과 같으며 ‘차용하다’, (토지나 집 따위를) ‘빌려 쓰다’라는 뜻이다.

③ 兩雲夢: 『漢書·地理志』에 따르면 형주 남군의 화용현 남쪽에 雲夢澤이 있었고, 역시 남군에 속해있는 편현에 雲夢官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형주 강하군의 서릉현에도 雲夢官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3)</sup> 胡平生(1997)은 雲夢官이 아마도 禁苑을 관리하는 관청이나 관리일 것이라고 하였다.<sup>4)</sup> 趙平安(1999)은 封泥의 左雲夢丞과 右雲夢丞에 근거하여, 兩雲夢이 운몽이 2개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편현과 서릉현 두 곳에 있었던 운몽관을 일컫는다고 주장하였다.<sup>5)</sup> 馬彪(2013)는 조금 열린 해석을 하여 兩雲夢이 2개의 雲夢官署 혹은 雲夢禁苑일 것이라고 하였다.<sup>6)</sup> 본고에서는 뒤 이은 2글자를 池籩로 읽는 설을 받아들여, 이 연못[池]과 금원[籩]을 편현과 서릉현에 있었다는 2개의 운몽관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판단하여 역문을 작성하였다.

④ 池魚: 이 두 글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정리자1은 節以로 석독하였고, 정리자2는 𣵵𣵵과 같이 예정하고 印璽로 읽었는데, 이는 죽간의 字跡이 모호하여 오판한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자형은 아래와 같다.









## &lt;표1&gt; 제1간의 6번째 글자(A.B)와 7번째 글자(C)

- 3) 『漢書·地理志第八上』: 「南郡, 秦置 …… 屬荊州, 縣十八.」(남군: 진나라 때 설치되었다. …… 형주에 속해 있고, 18개의 현이 있다.) 「華容, 雲夢澤在南, 荊州屬.」(화용현: 운몽택이 남쪽에 있는데, 형주의 (대표적인) 늪이다) 「編, 有雲夢官. 莽曰南順.」(편현: 운몽관이 있다. 왕망 때 남순이라고 불렀다.) 「江夏郡, 高帝置, 屬荊州, 縣十四.」(강하군: 고조 때 설치되었다. 형주에 속해 있고, 14개의 현이 있다.) 「西陵, 有雲夢官. 莽曰江陽.」(서릉현, 운몽관이 있다. 왕망 때 강양이라고 불렀다.) 본고에 인용된 전래문헌의 원문은 모두 中華民國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에서 제공하는 漢籍電子文獻資料庫(<http://hanji.sinica.edu.tw>)에 근거하였다.
- 4) 胡平生, 「雲夢龍崗秦簡考釋校證」, 『簡帛學研究』, 第1輯, 甘肅人民出版社, 1997, p.57.
- 5) 趙平安, 「雲夢龍崗秦簡釋文注釋訂補」, 『江漢考古』, 第3期, 1999, p.65.
- 6) 馬彪, 『秦帝國的領土經營, 雲夢龍崗秦簡と始皇帝の禁苑』,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3, p.351.

		
A 池	B 池	C 魚

6번째 글자는 A와 같이 글자의 상반부 오른쪽이 잔결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정리자2는 글자 하반부 왼쪽을 ㄷ로 하반부 오른쪽을 ㄹ로 파악해 印으로 본 것 같다. 方勇(2010)은 A를 彳와 它的 결합으로 파악하여 B와 같이 摹本을 작성하였다.<sup>7)</sup> 沱는 바로 池인데, 서주시대 금문에서 沱는 它를 가차하여 썼으며 고문자와 전래문헌에서 也와 它是 편방으로 쓰일 때 흔히 통용되었다.<sup>8)</sup>

<표2> 진간에 보이는 池

			
A 睡.爲34叁	B 睡.日甲15背叁	C 關338	D 里8.454
			
E 嶽(壹)854	F 嶽(肆)1255	G 嶽(肆)1297	H 嶽(肆)1297

이와 같이 현재 관찰 가능한 진간의 池는 모두 彳와 它的 결합이다. 또한 <표2>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자형은 彳와 它를 대칭적인 좌우결합 구조로 쓴 것이 아니고, 彳를 它的 왼쪽 아래에 작게 붙여 썼는데, 아마도 이것이 당시의 주류 서법이었던 것 같고, 제1간의 6번째 글자(<표1>A)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쓴 것이다.

제1간의 7번째 글자(<표1>C)는 적외선 사진기로 촬영된 최근의 도판을 보면 의심할 여지 없이 魚로 판독되는데, 이 魚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정확한 해석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정리자3은 魚를 籒[금원 어]로 읽었으며<sup>9)</sup>, 池籒를 관이 소유하고 있는 연못과 禁苑으로 보았다. 魚는 상고음이 疑母魚부에 속하고, 籒는 소리부호가 御인데 御 역시 상고음이 疑母魚부에 속한다. 또한 御는 자형의 가운데 윗부분인 午

7) 方勇, 『秦簡牘文字彙編』,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2010, p.256.



8) 季旭昇, 『說文新證』, 福建人民出版社, 2010, p.895.

9) 정리자3은 이것이 집필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李家浩가 제시하여 준 의견이라고 하였다.

에서 소리를 얻는데, 午의 상고음도 疑母魚部이다. 즉, 魚와 籛의 통가는 음운상 충분히 가능하다.

⑤ 有事: 정리자1·정리자2·정리자3은 有 뒤의 글자를 모두 到로 고석하였으나 정리자4와 정리자5는 적외선 카메라로 재촬영된 사진과 文例에 비춰봤을 때 事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표3> 제1간의 10번째 글자

	
원본	적외선 카메라 재촬영본

<표4> 『龍崗秦簡』에 보이는 到와 事

					
A 40	B 103	C 140	D 143	E 188	F 192
					
G 193	H 6	I 7	J 19	K 68	

有 다음 글자의 자형은 <표3>과 같은데, 이것을 『龍崗秦簡』에 보이는 다른 到·事의 자형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표4>를 작성하였다.(<표4>의 A~G는 到, H~K는 事) <표3> 자형의 왼쪽 위부분은 확실히 至의 위부분과 흡사하며, 오른쪽 절반은 刀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표3> 자형의 왼쪽을 至라고 보기에 세로획이 지나치게 길게 내려 그어져 있다. 이 길게 내려 그은 세로획에 주안점을 두고 <표3>의 자형과 <표4>의 事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유사한 면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표3> 자형의 오른쪽 아래 잔결된 필획은 ㄱ(ㄱ)의 흔적일 것이다. 물론 자형이 지나치게 훼손되어 있어, 자형에만 근거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데, 『龍崗秦簡』 제6간 ‘有事禁中(공무가 있어 금원에 들어가면)’과 제7간 ‘諸有事禁苑中者(공무가 있어 금원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에 有事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비해, 有到라는 표현은 『龍崗秦簡』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단 정리자4와 정리자5를 따라 이 글자를 事로 간주한다.

⑥ 禁中: 禁苑中の 생략으로, 일반 백성에게는 출입이 금지된 황가의 구역 안에 있음을 뜻한다.

⑦ 灌(灌)、葦、茅: 정리자4는 灌을 灌[물억새 환]으로 읽었고, 적외선 촬영 영상에 근거하여 葦[갈대 위]·茅[떠 모]를 새롭게 고석해내었다. 葦와 茅가 풀의 일종인 것으로 보아 灌 역시 물억새를 뜻하는 灌으로 읽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sup>10)</sup>

## 2) 第二簡

원문	竇出入及毋(無)符傳而闌入門者, 斬其男子左止(趾), □女【子】□
역문	하수도로 (몰래) 드나들거나 출입증 없이 제멋대로 관문을 통과하는 자는 남자의 경우 왼발을 자르는 형을 집행하고, 여자의 경우 □

① 竇出入: 정리자1·정리자2·정리자3은 ‘구멍을 뚫어 출입하다’ 또는 ‘뚫린 구멍으로 출입하다’라고 해석하였는데, 馬彪(2013)는 竇를 瀆으로 읽고, ‘성벽의 물길[城壁的水道]’이라고 풀이하였다.<sup>11)</sup> 竇와 瀆은 모두 賣[팔 육]에서 소리를 얻고, 상고음에 공히 定母屋部에 속해 통가에 문제가 없는데, 정리자4는 『周禮·考工記』와 『荀子·正論』<sup>12)</sup>에 근거하여 馬彪의 견해에 힘을 실었으며, 竇를 ‘하수도’로 풀이하였다. 禁苑은 일반인의 사사로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경비가 삼엄한 공간인데, 만약 누군가가 몰래 잠입하고자 했다면 경비병의 눈을 피해 구멍을 새로 뚫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나 있는 하수도로 기어 들어가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② 符傳: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증빙서, 즉 출입증을 나타낸다.

③ 闌入: 통행증 혹은 출입증 없이 제멋대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闌의 소리부호

10) 灌은 본래 鵠[황새 관]의 初文인데 이 때는 관(古玩切, guàn)으로 읽고, 물억새라는 뜻으로 쓰일 경우에는 환(胡官切, huán)으로 읽는다.

11) 馬彪, 『秦帝國의領土經營, 雲夢龍崗秦簡と始皇帝の禁苑』,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3, p.351.

12) 『周禮·考工記·匠人』: 「竇, 其崇三尺. 牆厚三尺, 崇三之。」(궁중의 물길은 그 높이를 3척으로 하고, 벽은 두께를 3척으로 높이는 두께의 3배로 한다.) 鄭玄注: 「宮中水道。」(竇는 궁중의 물길을 일컫는다.) 『荀子·正論』: 「今人或入其央瀆, 竊其豬彘, 則援劍戟而逐之, 不避死傷。」(지금 어떤 사람이 하수도로 들어가서 그 집의 돼지를 훔쳐간다면, (집주인은) 칼이나 창을 빼들고 그를 쫓아갈 것이며, 죽거나 다치는 것도 무릅쓸 것이다.) 楊倞注: 「央瀆, 中瀆也, 如今人家出水溝也。」(央瀆이란 中瀆을 말하는데, 요즘 사람 사는 집에 만들어 두는 하수도를 뜻한다.)



는 東인데, 자형의 유사함으로 인해 東처럼 써져있다. 『龍崗秦簡』을 비롯해 다른 秦簡에서 東과 闌은 모두 17번 보이는데, 아래 <표5>에 보이듯이 단독으로 쓰인 東이 건 편방으로 쓰인 東이건 예외 없이 모두 東과 혼동된 서법을 보여주고 있다. 方勇(2010) 역시 秦隸의 이러한 東과 東의 혼동현상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sup>13)</sup>

<표5> 진간에 보이는 東과 闌의 자형

						
周315	周375	睡.答139	龍崗2	里8.1716	嶽(肆)1990	嶽(肆)1945

④ 止: 이 글자 부분의 字跡이 모호하여 정리자1과 정리자2는 고석하지 못했는데, 정리자3은 趾로 고석해내었으며, 정리자4와 정리자5는 止로 고석하였다. 趾는 止가 ‘발’이라는 본의로 쓰이지 않고 ‘멈추다’라는 파생의로 주로 쓰이자, 본의를 적기 위해서 분화된 글자로, 여기에서는 趾로 고석하건 止로 고석하건 다 ‘발’을 의미한다. 斬止는 발을 자르는 형벌로, 고문자에서 止는 발목 아래의 발 부위를 의미하고, 足은 무릎 아래의 하지를 나타낸다. 『龍崗秦簡』 이외의 진간에 보이는 斬의 목적어로는 首·左止·大木·豚耳 등이 있는데, 그 출처는 다음과 같다.

斬首: 嶽(壹).占43·睡.秦律155·里8.1888

斬左止: 嶽(肆)2129·嶽(肆)1997·嶽(肆)2151·睡.答126

斬大木: 睡.日甲109正貳

斬豚耳: 周家台352

이처럼 사람 혹은 동물의 신체 일부나 나무를 자르는 것도 모두 斬으로 표현하였다. 이 중 발을 자르는 斬止 형벌에 처하는 경우 모두 왼쪽 발을 자르는 형을 집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진간에서는 예외 없이 후기분화자인 趾가 아닌 止를 사용하였다.

### 3) 第三簡

원문	傳者入門, 必行其所當行之道, □□【不】行其所當行□
역문	문서 전달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원의) 문을 통과하면 반드시 그에게 규정 상 정해진 길로 걸어야 한다. 만약 규정되지 않은 길로 걷게 되면□

13) 方勇, 『秦簡牘文字彙編』,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2010, p.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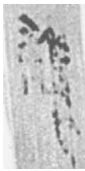








- ① 傳者: 공문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 ② 當: 秦漢시대 법률 문서에서 當과 不當은 법률 규정에 의거해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리킨다. 중국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의 귀천에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이 구분되어 있어, 지위와 신분에 맞게 규정된 길이 있었다.

#### 4) 第四簡

원문	詐(詐)僞假人符傳及襲人符傳者, 皆與闌入門同罪.
역문	사기나 위조로 남에게 출입증을 빌려주었거나 남에게 출입증을 빌려 받은 자 모두 제멋대로 관문을 통과한 자와 동일한 죄로 다스린다.

① 襲人符傳: 정리자2와 정리자3는 讓人符傳으로 고석하여,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증빙서를 타인에게 양도해 사용하게 한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정리자4는 『張家山漢簡·二年律令·津關令』에 등장하는 죄명 襲人符傳에 근거하여 정리자2와 정리자3이 讓으로 고석한 제4간의 8번째 글자를 襲으로 수정 고석하였다. 주지하듯 前漢 초기의 법률은 대부분 秦律를 답습한 것인데, 侯旭東(2015)은 漢簡과 진간에 동일한 죄명이 등장하여, 고문자자료로서 秦漢 법률의 계승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예가 하나 추가되었다며 정리자4의 출간 의의를 높게 평가하였다.<sup>14)</sup>

<표6> 제4간의 8번째 글자와 진간에 보이는 讓과 襲

				
A 제4간 8번째 글자	B 睡.爲11貳	C 嶽(壹) 爲1567	D 嶽(壹) 爲1575	E 睡.答105
				X
F 睡. 日甲35背叁	G 里8.1518正	H 里8.1721	I 里8.753背	



















14) 侯旭東, 「『秦簡牘合集』秦簡整理的新里程碑」, <http://www.guoxue.com/?p=30530> [2020.10.12]










A가 문제가 되는 제4간의 8번째 글자인데 자형이 잔결되어 판독이 쉽지 않아, 다른 진간의 관련 글자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B~D는 讓이고 E~I는 襲인데, 수호지진간의 讓(B)은 그 오른쪽 편방 襄에서 衣旁을 裏나 褻처럼 위(宀)와 아래(衣)로 분리해서 썼으나, 시대가 그 뒤인 악록진간의 讓(C·D)은 衣旁을 袋나 裂처럼 분리하지 않고 통째로 글자의 아랫부분에 위치시켰는데, A 역시 이러한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호지진간의 襲(E·F)은 이른 시기의 서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나, 시대가 그 뒤인 이야진간의 襲(G·H·I)은 龍의 왼쪽 윗부분이 급격히 간화되어 본래 것처럼 썼던 부분을 3개 혹은 4개의 짧은 가로획으로 썼고, A 역시 왼쪽 윗부분이 몇 개의 짧은 가로획이다. 즉, 시대가 약간 늦은 진간에서 讓의 衣를 분리해서 쓰게 되지 않은 탓과 襲의 立을 3~4개의 짧은 가로획으로 쓰게 된 탓에, 본래 자형이 혼동될 수 없었던 讓과 襲의 자형이 어느 정도 유사하게 되었고, 여기에 A는 자형마저 잔결되어 정확한 판독에 장애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정리자4가 지적하였듯이 襲은 『左傳·昭公二十八年』의 杜預注에 受也(받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러므로 假人符傳은 ‘符傳을 타인[人]에게 빌려준[假]’ 죄이고, 襲人符傳은 ‘符傳을 타인[人]으로부터 받은[襲]’ 죄인 것이다.

② 人과 入: 人과 入은 상주시대의 갑골문과 금문부터 전국시대 육국문자까지 그 자형이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전국시대에서 통일 이후에 이르는 동안 秦문자에서 人과 入은 종종 혼용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진간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아래는 각종 진간의 人과 入 자형이다.

<표7> 진간에 보이는 人과 入

	人			入		
睡虎地 秦簡						
	A 語6	B 日乙78	C 爲34(伍)	D 效41	E 律6	F 答92
龍崗 秦簡						
	G 4	H 4	I 6	J 2	K 4	L 5
里耶 秦簡						
	M 8.297	N 8.72背	O 8.1958	P 8.416	Q 8.1200	R 8.1459

周家臺 秦簡						
	S 140 貳	T 231	U 136			
岳麓 秦簡						
	V (叁)1031	W (壹)1560	X (壹)1508	Y (壹)73	Z1 (叁)1336	Z2 (叁)識17

人과 入의 미세한 차이에 대해 분석해보자면, 수호지진간에서 人은 첫 획이 짧고, 오른쪽으로 향하는 두 번째 획은 비교적 긴 반면, 入은 첫 획이 길고, 두 번째 획은 비교적 짧거나 E처럼 길이가 비슷하다. 악록진간 역시 人은 첫 획이 짧고 두 번째 획은 길며 入은 특히나 Z1처럼 첫 번째 획이 길고 두 번째 획이 짧다. 또 다른 차이점을 짚어보자면 人의 경우 이야진간의 M과 악록진간의 V처럼 납작하게 쓰는 경향이 있으나 入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진간의 모든 人과 入에 적용되지 않으며, 두 글자가 혼용되는 경우도 많다. 용강진간이 바로 그러한데, 본고의 연구 대상인 1번~10번 죽간에는 人이 3번 출현하고 入이 6번 출현하는데 사실상 자형상 명확한 구별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龍崗秦簡』의 나머지 죽간에 보이는 人과 入도 대부분 자형이 비슷하여 문맥에 의존하여 고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 5) 第五簡

원문	關=(門關)合符, 及以傳書閱入之, 及諸佩(佩)入司馬門久 <sup>15)</sup>
역문	사문과 사관이 합符하고, 문서를 열람한 뒤 그를 들여보내며, 入司馬門久를 패용한 모든 자는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關=: 정리자1·정리자2·정리자3은 關=의 =을 重文부호로 보고, 關=合符를 ‘關, 關合符’로 읽어, ‘關門에 (도착하면) 關吏가 符信이 합쳐지는지 대조 확인한다’<sup>15)</sup>라고 풀이하였다. 그런데 정리자4는 關=의 =를 合文부호로 보아, 關=合符를 ‘門關合符’로 읽었다. 『周禮·地官·掌節』: 「門關用符節, 貨賄用璽節, 道路用旌節, 皆有期以反節.」(사문과 사관은 부절을 사용하고, 金玉과 포목을 관리하는 관리는 새절을 사용하

15) 고대 중국에서는 나무나 金石으로 符를 만들어 그 위에 글자를 새기거나 쓰고, 쌍방이 두 개로 나누어 각자 소지한 후, 증빙이 필요할 경우 합쳐보아 이를 증명하였는데 이를 合符라고 한다.

며,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는 정절을 사용하는데, 모두 사용기한이 있어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鄭玄注: 「門關, 司門、司關也.」(門關이라 함은 사문과 사관 두 직책을 일컫는다.) 본고에서는 『周禮』의 기록과 일치하는 정리자4의 석독을 따라 關=을 門關으로 읽고 ‘사문과 사관’으로 옮겼다.

秦문자의 𠂔文에 대해 첨언하자면, 大夫를 夫=로, 營宮을 營=으로, 貨貝를 貨=로, 僞爲를 僞=로 썼던 것처럼 연이은 2개의 글자가 편방이나 필획을 공유할 경우들 중에서 더 필획이 많은 글자만 쓰고 그 아래에 =를 붙인 경우가 많이 보인다.<sup>16)</sup> 이러한 예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진간에서 門關을 關=으로 줄여 쓰는 것은 완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② 傳書: 문서를 말한다. 『岳麓書院藏秦簡』에도 傳書라는 명사가 등장하는데, 다음과 같다. 『岳麓書院藏秦簡(伍)』1755: 「諸傳書, 其封毀, 所過縣官【輒復封以令丞印】, 封纏解, 輒纏而封其上, 毋去故封.」(모든 ‘傳書’는 그 봉인이 훼손되었을 경우(‘傳書’가 통과하는 지역의) 현관이 다시 봉하고 관인을 찍어야 한다. 봉인이 풀렸으면 다시 묶고 그 위를 봉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원래의 봉인을 제거하면 안 된다.) 『岳麓書院藏秦簡(肆)』1428: 「取傳書及致以歸及□,」(‘傳書’를 수령하고 그것을 보내 귀속시키고□) 『岳麓書院藏秦簡(肆)』1271: 「傳書受及行之, 必書其起及到日月夙莫(暮), 以相報, 報宜到不來者, 追之.」(‘傳書’를 받거나 그것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발송하거나 접수한 날짜와 일시를 기록하여 보고하고, 도착했어야 하는데 오지 않았을 경우, 그 행방을 추적한다.) 『岳麓書院藏秦簡』4권의 1271과 유사한 기록은 이미 『睡虎地秦簡』에 등장한 바 있다.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行書』184: 「行傳書、受書, 必書其起及到日月夙暮, 以輒相報毀. …… 宜到不來者, 追之.」(‘傳書’를 보내거나 받을 때에는 반드시 문서를 발송하거나 접수한 날짜와 일시를 기록하여 보고해야 한다. …… 도착했어야 하는데 오지 않았을 경우, 그 행방을 추적한다.)

③ 佩(佩): 秦漢시기의 관리는 모두 印信綬帶를 몸에 착용하였고, 佩는 그것을 몸에 지닌다는 의미의 동사이다. 문제는 자형인데 아래에 보이듯이 제5간의 13번째 글자(A)는 사실상 人과 風의 결합이다.

정리자3은 『張家山漢簡』과 『阜陽雙古堆漢簡』에도 佩를 佩처럼 쓴 몇 개의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龍崗秦簡』을 통해 자형이 유사한 佩와 佩의 혼용이 秦代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 관찰 가능한 秦문자의 佩는 B·C·D와 같이 그래도 人과 風의 결합이 많은데, E처럼 風 안쪽의 巾이 虫처럼 써진 경우가 소수 존재한다.

16) 李蘇和, 『秦文字構形研究』,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14, pp.104-105.

&lt;표8&gt; 제5간의 13번째 글자와 다른 진간의 佩

				
A 제5간 13번째 글자	B 睡. 日甲146正貳	C 獄(肆)1252	D 秦泥考669	E 獄(叁)1828

④ 入司馬門久: 禁苑의 바깥쪽에 위치한 外門을 司馬門이라고 하며 위병이 보초를 서는 곳이다. 久는 진간에서 灸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많은데, ‘낙인을 찍는다’라는 의미이다. 秦漢시기에 성행하였던 久刻職物은 관 소유의 물품에 낙인을 찍어 국가 소유임을 표시한다는 뜻이며, 여기에서 久에 표식이란 의미가 생겼다. 정리자4는 入司馬門久가 『張家山漢簡』에 등장하는 入門衛木久와 유사한 종류의 출입증이라고 보았는데, 入門衛木久은 『岳麓書院藏秦簡』에도 등장한다. 『岳麓書院藏秦簡(伍)·第一組』0857+0871+0866: 「諸佩入門衛木久者節(即)轂(繫), 皆自言吏歸久, 轂(繫)盈一日不自言吏歸久者皆耐, 其莫臯(罪)當耐以上□」(入門衛木久를 지닌 모든 자는 (그것을 자신의 몸에) 매어 두어라. 그리고 담당 관리에게 반납할 때 스스로 보고하라. 만약 하루 종일 매고 있었는데도 관리에게 표식을 반납할 때 스스로 보고하지 않은 자는 구레나룻을 깎는 처벌을 내린다. 그 죄는 마땅히 구레나룻 깎는 것 이상으로□) 즉, 入司馬門久는 ‘금원 바깥쪽 문[司馬門]에 들어갈 수 있는[入] 출입증[久]’이란 의미이다.

## 6) 第六簡

원문	禁苑吏、苑人及黔首有事禁中, 或取其□□□□
역문	禁苑의 관리·禁苑에서 일하는 자, 그리고 일반 백성이 공무가 있어 금원으로 들어가거나, 或取其□□□□

① 黔首: 『史記·秦始皇本紀』의 기록에 따르면 秦始皇26年(B.C.221)에 평민을 黔首로 고쳐 부르도록 했다고 한다.<sup>17)</sup> 즉 黔首라는 어휘는 秦출토자료의 斷代에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黔首는 현재까지 출토된 진간에서 118번 출현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百姓과 黔首가 등장하는 진간을 서사 시대순으로 배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睡虎地秦簡이 龍崗秦簡을 포함한 다른 4개의 진간보다 분명히 먼저 작성되었음을 확

17) 『史記·秦始皇本紀』: 「更名民曰黔首」(백성을 黔首라 고쳐 부른다.)

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불분명하던 天水放馬灘秦簡 서사시기의 상한선을 秦始皇26年(B.C.221) 이후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睡虎地秦簡	天水放馬灘秦簡	龍崗秦簡	里耶秦簡	岳麓書院藏秦簡
百姓	15	0	0	0	0
黔首	0	4	9	31	74

## 7) 第七簡

원문	諸有事禁苑中者, □□傳書縣、道官, □鄉□□□
역문	공무가 있어 금원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縣과 道の 관아에 공문을 □

① 有事: 劉金華(1994)는 『左傳·僖公9年』의 기록<sup>18)</sup>에 의거하여 有事的 뜻을 ‘제사 지내다’라고 파악하여, 『龍崗秦簡』 제7간의 대강의 의미를 ‘금원에 제사가 있으면 반드시 공문서로 해당지역의 관아에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풀이하였다.<sup>19)</sup> 그러나 馬彪(2013)와 정리자4·정리자5는 다른 진간과 한간에 등장하는 有事的 내용에 근거하여 有事を ‘공무가 있다’라고 보았다.<sup>20)</sup> 禁苑은 황가의 유람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었으므로 『龍崗秦簡』의 有事を ‘제사 지내다’라고 풀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有事を ‘공무가 있다’로 옮겼다.

② 縣、道官: 정리자1과 정리자2는 縣道官으로 석문을 작성하였는데, 정리자3·정리자4·정리자5는 縣과 道 사이에 모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해석에도 차이가 존재하여 전자는 縣道官이라는 하나의 관아가 있었다고 보았고, 후자는 縣官과 道官이라는 두 개의 관아로 파악하였다. 『漢舊儀』: 「內郡為縣, 三邊為道。」(內郡에 縣을 설치하고, 三邊에 道를 설치한다.) 『漢書·百官公卿表上』: 「列侯所食縣曰國, 皇太后、皇后、公主所食曰邑, 有蠻夷曰道。」(열후가 식읍으로 받은 현을 국이라고 하고, 황태후·황후·공주가 식읍으로 받은 현을 읍이라고 하며, 오랑캐가 있는 현을 도라고 하였다.) 이

18) 『左傳·僖公9年』: 「王使宰孔賜齊侯胙, 曰: 天子有事于文武, 使孔賜伯舅胙, 齊侯將下拜。」(주나라 천자가 제나라 환공에게 재공을 보내 제사에 쓰는 고기를 하사했는데, (제나라에 도착한) 재공이 “천자께서 문왕과 무왕께 제사를 올리는 와중에도 나를 환공에게 보내 제사용 고기를 하사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제나라 환공은 섬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으려고 했다.)

19) 劉金華, 「『雲夢龍崗秦簡』所見之秦代苑政」, 『文博』, 第1期, 2002, p.109.

20) 馬彪, 『秦帝國の領土經營, 雲夢龍崗秦簡と始皇帝の禁苑』,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3, p.356.

와 같은 기록으로 보아 縣官과 道官을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한데, 여타 진간에서 縣官·道官·縣道官의 출현 횟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睡虎地秦簡	龍崗秦簡	里耶秦簡	岳麓書院藏秦簡
縣官	1	2	36	10
道官	1	3	0	0
縣道官	0	11	1	16

『里耶秦簡』과 『岳麓書院藏秦簡』에는 道官이 보이지 않으며, 『龍崗秦簡』에는 3회 출현하는데 모두 앞부분에 어떠한 글자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지만 죽간 자체가 훼손됐거나 字跡이 지워져<sup>21)</sup> 이 세 개의 道官은 縣道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201에 道官이 확실히 단독으로 등장하는데, 간문은 다음과 같다.「道官相輸隸臣妾、收人, 必署其已稟年月日, 受衣未受, 有妻毋(無)有. 受者以律續食衣之. 屬邦」(각 道官에서 隸臣妾 혹은 체포된 사람을 이송함에, 반드시 이들이 식량을 수령한 年月日, 의복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 처가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한다. 만일 식량과 의복을 수령한 자라면 법률규정에 따라 의복과 식량을 계속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屬邦)<sup>22)</sup> 간문 맨 뒤에 등장하는 屬邦은 소수민족을 관리하던 기관명으로, 이를 통해 이 조문은 屬邦의 직무에 관한 법률임을 알 수 있는데, 위에 인용한 『漢書·百官公卿表上』의 기록대로 道는 오랑캐가 거주하던 지역임이 『睡虎地秦簡』의 이 기록에 의해 더욱 확실해졌다. 즉, 道官은 소수민족 지역의 관아이고, 縣官은 한족 지역의 관아이므로, 본고는 縣道官를 ‘縣과 道の 관아’로 보는 견해를 따른다.

## 8) 第八簡

원문	制: 所致縣道官, 必復請之. 不從律者, 令、丞
역문	법률 규정: 縣과 道の 관아에서 접수한 문서는 반드시 재차 상급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이) 법률을 따르지 않는 자는 縣令과 縣丞이

① 制: 정리자<sup>1)</sup>은 이 글자를 刻으로 고석하였는데, 이를 胡平生(1997)이 制로 수정

21) 『龍崗秦簡』88: 「□□道官皆勿論□」, 『龍崗秦簡』206: 「□道官-長-(官長, 官長)問之(?)□」, 『龍崗秦簡』242: 「□□道官□」

22) 尹在碩, 『睡虎地秦墓竹簡譯註』, 소명출판, 2010, pp.218-219.



고석하였다. 이 制를 上文에 포함시킬지 下文에 포함시킬지의 문제에 대해 劉釗(2005)가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制는 고대에 帝王의 명령을 가리키거나 제도 혹은 법률 규정을 뜻하기도 하였으므로, 所致縣道官, 必復請之를 법률 규정의 내용으로 파악하고, 制 뒤에 쌍점(:)을 찍었다.<sup>23)</sup> 본고 역시 劉釗의 견해를 따라 제8간은 대체로 그의 견해대로 역문을 작성하였다.

추가로 한가지 언급하자면, 『岳麓書院藏秦簡(伍)』2166+2169에 制曰이라고 하고 법률 규정의 내용을 명시한 구절이 있어, 劉釗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그 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制曰: 此等令各請屬所執灋<sup>24)</sup>, 執灋請之.」(법률에서 이르길: 이와 같은 명령은 각자가 예속된 지방의 법관에게 상신하며, 그 법관은 (상급기관에) 상신한다.)

## 9) 第九簡

원문	縣道官, 其傳□□
역문	縣과 道の 관아는 그 보낸□□

① 傳: 정리자1은 傳로 고석하였으나 정리자2가 傳으로 수정 고석하였다. 秦문자에서 傳과 傳는 자형이 상당히 유사한 탓에 종종 혼용되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윗부분 ㄴ의 모양으로 구별이 된다.

<표9> 제9간의 5번째 글자와 秦문자의 傳과 傳

		
A 제9간 5번째 글자	B 岳麓(伍)1123	C 岳麓(伍)1028正

위의 <표9>에 보이듯이 傳(B)의 오른쪽 윗부분은 ㄴ과 田의 결합 형태인데, 傳(C)의 오른쪽 윗부분은 ㄴ의 가운데 세로획이 굵어진 형태이다. 『龍崗秦簡』 제9간의 5번째 글자는 자형의 오른쪽 윗부분이 굵은 세로획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23) 劉釗, 「讀龍崗秦簡劄記」, 『古文字考釋叢稿』, 岳麓書社, 2005, p.313.

24) 執灋은 官名 또는 官署名을 가리킨다. 혹은 朝廷法官 또는 郡縣法官을 가리키기도 한다. 陳松長主編, 『岳麓書院藏秦簡(肆)』, 上海辭書出版社, 2015, p.78.

## 10) 第十簡

원문	A 取傳書鄉部稗官. 其□及□ B □□【作】務□□
역문	A 鄉部の 稗官이 있는 곳에서 문서를 수령한다. B □□일하여□□

① 鄉部: 鄉에 관한 『漢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漢書·百官公卿表』: 「大率十里一亭, 亭有長. 十亭一鄉, 鄉有三老、有秩、嗇夫、游徼.」(크게 10리를 1정으로 하고 정에는 장을 두었다. 10정을 1향으로 하고, 향에는 삼로·유질·색부·유요가 있었다.) 鄉部는 鄉의 관아를 가리키는데, 역시 『漢書』에서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漢書·貢禹傳』: 「農夫父子暴露中野, 不避寒暑, 捫中杷土, 手足胼胝, 已奉穀租, 又出稟稅, 鄉部私求, 不可勝供.」(농부는 애비와 자식이 모두 들판에 나와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못한채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느라 손발이 부르트면서도, 이미 곡물에 대한 세금을 바쳤고, 거기에 벼단에 대한 세금도 내야함에도, 향부가 사사로이 징수하니,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顏注: 「言鄉部之吏又私有所求, 不能供之.」(향부의 관리들이 또 사사로이 거두어들이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② 稗官: 미관말직을 가리킨다. 즉 鄉部稗官은 향부의 말단 관리를 뜻한다.

③ 【作】務: 務 앞 글자의 字跡이 상당히 모호하나 정리자1은 이를 作으로 고석하였다. 정리자1이 언급하였듯이 『墨子』와 『漢書』에 作務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墨子·非儒下』: 「貪於飲食, 惰於作務, 陷於飢寒, 危於凍餒, 無以違之.」(먹고 마시는 것만 탐하고, 일하는데 게으름을 피우면, 배고픔과 추위에 빠져 헐벗고 굶주리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漢書·列傳·尹賞傳』: 「雜舉長安中輕薄少年惡子, 無市籍商販作務, 而鮮衣凶服被鎧扞持刀兵者, 悉籍記之, 得數百人.」(장안성 안의 경박한 불량 청소년·시장의 명부에 등록하지 않고 장사하는 자·복장이 불량하고 갑옷차림에 무기를 휴대한자를 검거하여 수백명의 명단을 작성하였다.) 즉, 作務는 ‘일하다’, 특히 ‘생업에 종사한다’라는 의미인데, 다른 진간에도 몇 차례 보인다.<sup>25)</sup>

자형에 대해서 고찰해 보자면, 비록 A의 자형이 많이 훼손되었고 字跡이 모호하나 진간에 보이는 다른 作의 자형과 대조하여 보면, 作으로 고석한 것을 납득할 수 있다. B~G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秦문자의 作은 乍의 세로획을 오른쪽으로 뚜렷하게

25) 『睡虎地秦簡』 3회, 『里耶秦簡』 10회, 『岳麓書院藏秦簡』 5회.

꺾어 내리는 서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물론 H처럼 乍의 세로획을 오른쪽으로 완만히 둥글려 내린 자형도 보이나, 그 숫자가 많지 않다. 즉, A의 왼쪽 세로획은 1의 2번째 획이고, A의 오른쪽 하단의 사선으로 그은 획은 乍의 세로획이 아래쪽 절반만 남은 흔적인 것이다.

<표10> 제10간B의 1번째 글자와 진간의 作

			
A 제10간B 1번째 글자	B 睡.為29	C 睡.律49	D 放.日甲16
			
E 龍崗59	F 龍崗90	G 里9.981	H 嶽(壹)1543

#### 4. 나가는 말

본고는 용강진간 제1간부터 제10간까지의 내용에 대해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해독을 시도하였으며, 쟁점이 되는 부분에는 상세한 주석을 덧붙이고 고찰을 진행하였다. 용강진간 제1간에서 제10간까지의 내용은 禁苑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기록으로 그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원은 皇家의 가축과 식물들을 기르고 관리하던 정원으로 일반 백성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따라서 하수도로 드나들고 출입증 없이 금원을 함부로 출입하는 행위, 출입증 위조·차용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斬止라는 상당히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또한 공무가 있어 금원에 들어가야 하는 모든 자는 縣과 道の 관아에 공문을 보내 알려야 했으며 현과 도의 관아에 접수된 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급 기관에 문의해야 했다. 문서 전달 업무나 공무가 있어 금원에 들어오게 되면 증빙서 대조를 거쳐 통과시켰고, ‘入司馬門久’라는 표식이 되어 있는 패를 달고 들어오도록 할 만큼 일반인의 출입이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본고에서는 里耶秦簡과 岳麓書院藏秦簡 등 용강진간 이후에 발굴된 秦문자 자료를 주석 작업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제1간의 池와 事, 제4간의 襲, 제5간의 佩, 제9간의 傳, 제10간의 作과 같이 판독에 어려움이 있는 글자에 대해 秦문자 자형 비교를 진행해 보다 정확한 고석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더불어 진간에 보이는 黔首의 출현

양상을 통해 秦문자 자료의 斷代 확정의 단서를 재확인하였다.

출토자료의 고석은 고문자학 그 자체의 연구성과이기도 하지만, 중국고대사 연구에 새로운 사료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나 용강진간은 통일제국 秦의 법률 제도 연구에 유용한 자료이다. 이에 본고에 이어 향후 용강진간에 대한 해독과 주석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그 결과물로 용강진간의 정확한 우리말 역주본이 나와 국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에 하나의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林炳德, 「書評 — 秦簡牘合集(陳偉主編, 武漢大學出版社, 2014)」, 『中國史研究』, 第106輯, 2017.
- 尹在碩, 『睡虎地秦墓竹簡譯註』, 소명출판, 2010, pp.218-219.
- 季旭昇, 『說文新證』, 福建人民出版社, 2010, p.895.
- 鄧躍敏, 「從郭店楚簡到龍崗秦簡看‘所’字的發展」, 『四川教育學院學報』, 第4期, 2009.
- 雷銘·王彥輝, 「從『龍崗秦簡』看秦的禁苑構成及相關問題」, 『西安財經學院學報』, 第6期, 2017.
- 劉金華, 「『雲夢龍崗秦簡』所見之秦代苑政」, 『文博』, 第1期, 2002, p.109.
- 劉釗, 「讀龍崗秦簡劄記」, 『古文字考釋叢稿』, 岳麓書社, 2005, p.313.
- 劉信芳·梁柱, 「雲夢龍崗秦簡綜述」, 『江漢考古』, 第3期, 1990.
- , 『雲夢龍崗秦簡』, 科學出版社, 1997.
- 李蘇和, 『秦文字構形研究』,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14, pp.104-105.
- 李天虹·曹方向, 「龍崗秦簡再整理校記(續)」, 『中國文字學報』, 2015.
- 馬 彪, 「龍崗秦簡譯注(凡十一篇)」, 『異文化研究』, 第6號, 山口大學人文學部異文化交流研究設施, 2012.
- , 『秦帝國的領土經營, 雲夢龍崗秦簡と始皇帝の禁苑』,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3, p.351, p.356.
-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荊州博物館·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編, 『秦簡牘合集釋文注釋修訂本(叁)』, 武漢大學出版社, 2016.
- 方 勇, 『秦簡牘文字彙編』,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2010, p.140, p.256.
- 王 甜, 『龍崗秦簡詞彙語法研究』, 天津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 于青明, 『龍崗秦簡禁苑律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 熊昌華, 『龍崗秦簡語法研究』, 西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10.
- 魏紅友, 「雲夢龍崗秦簡中兩處‘亡人’考釋」, 『溫州文物』, 第2期, 2016.
- 曹方向, 「龍崗秦簡文字補釋」, 『簡帛』, 第6期, 上海古籍出版社, 2011.
- 趙平安, 「雲夢龍崗秦簡釋文注釋訂補」, 『江漢考古』, 第3期, 1999, p.65.
- 中國文物研究所·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編, 『龍崗秦簡』, 中華書局, 2001.
- 陳松長主編, 『岳麓書院藏秦簡(肆)』,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5, p.78.
- 陳偉主編, 『秦簡牘合集(貳)』,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14.
- 韓劍南, 「『龍崗秦簡』虛詞研究」, 『成都紡織高等專科學校學報』, 第4期, 2009.
-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孝感地區博物館·雲夢縣博物館, 「雲夢龍崗6號秦墓及出土簡牘」, 『考古學集刊』, 第8集, 北京: 科學出版社, 1994.
- 胡平生, 「雲夢龍崗秦簡考釋校證」, 『簡帛學研究』, 第1輯, 甘肅人民出版社, 1997, p.57.
- 侯旭東, 「『秦簡牘合集』秦簡整理的新里程碑」, <http://www.guoxue.com/?p=30530> [2020.10.12]
- 漢籍電子文獻資料庫, <http://hanji.sinica.edu.tw>

##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出土文獻, 龍崗秦簡, 秦簡, 秦文字, 秦法律
	영문	Unearthed Documents, LongGang Qin Bamboo Strips, Qin Bamboo Strips, Qin Characters, Qin Dynasty Law

**A Study of Longgang Qin Bamboo Strips 1 to 10**

Lee, So-Hwa · Kim, Jun-Soo

This study presents the translation of the first to tenth Longgang Qin Bamboo Strips into Korean based on the findings of preceding studies, along with annotations on the issues worthy of further discussion and related considerations. Longgang Qin Bamboo Strips 1 to 10 contain records about laws related to palace gardens,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 palace garden was a place where livestock and plants belonging to the imperial family were raised and managed, and access by the general public to the garden was prohibited. Therefore, actions such as trespassing on a palace garden through the surrounding sewers, entering it without a valid pass, or forging and borrowing such a pass were considered serious crimes and sentenced to heavy punishments including cutting off the left foot. In addition, all those who needed to enter a palace garden for public affairs had to send an official letter to the competent departments of prefectural and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to request entrance to the garden, and the documents sent to these offices must be escalated to higher level agencies. When one enters a palace garden for document delivery or public affairs, he would go through a verification process of the relevant documents, and was required to wear a plaque marked “入司馬門久” while in the garden. In this way, access by the general public to palace gardens was managed in a very strict and restrictive manner.

This study analyzed the letters and vocabulary used in Longgang Qin Bamboo Strips by taking full advantage of Qin character documents unearthed after the discovery of Longgang Qin Bamboo Strips such as Liye Qin Bamboo Strips and Qin Bamboo Strips Collected in Yuelu Academy. By collecting and comparing a large amount of Qin character forms, this study also performed a meaningful analysis on the characters that could not be clearly traced back in Longgang Qin Bamboo Strips or pairs of the characters that were difficult to interpret due to similar forms such as 池 (chí) and 事 (shì) in Strip 1, 闌 (lán) in Strip 2, 襲 (xí) and 人 (rén) and 入 (rù) in Strip 4, 佩 (pèi) in Strip 5, 傳 (chuán) in Strip 9, and

作 (zuò) in Strip 10. Based on the appearance pattern of “黔首” (qiánshǒu) in the strips, this study also found a clue to dating the creation of these strip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assages “襲人符傳” (xírénfúzhuan) and “入門衛木久” (rùménwèimùjiǔ) contained in Longgang Qin Bamboo Strips are also included in Zhangjiashang Han Bamboo Strips. This serves as a good example showing that the Han Dynasty inherited the legal system of the Qin Dynast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by continuous annotation work and studies on Longgang Qin Bamboo Strips and more in-depth research on the strips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이소화 / 李蘇和 / Lee, So-Hwa		김준수 / 金俊秀 / Kim, Jun-Soo		
	소 속	충북대학교 중국학연구소		한국교원대학교 중국어교육과		
	Em@il	suhe0916@naver.com		dorachu@naver.com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0.11.19	심 사 일	2020.12.02	게재확정일	2020.12.17